



## 기업, 환율 콤플렉스 탈피해야



은 기 윤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최** 근들어 엔화가치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테러사건이 발생한 직후만 해도 116엔선을 기록한 바 있는 엔·달러 환율이 불과 3개월여만에 130엔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러한 엔화가치의 급락은 국제외환시장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미치고 있다.

엔화환율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엔화가 아직까지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로서 그 가치변동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수출면에서 경쟁 관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엔화가치 하락에 맞춰 자국통화 가치의 동반절하를 유도함으로써 대일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대만달러는 15년만에 가치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싱가포르달러도 15년만에 최저가치를 기록할 정도로 주변국 통화가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엔화가치 향방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는 것 같다. 신문에서는 매일같이 엔화환율의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정부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엔화환율 향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이 일본상품과 밀접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상대국은 일본이다. 특히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등에서 양국간 경쟁관계는 어느나라 사이보다 높은 상태다.

엔화가치가 떨어질수록 일본업체들은 수출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기업들의 걱정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엔저 현상에 따라 원화가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가치 하락폭이 원화가치 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에 원·엔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일본 경제의 상황이나 국제적 여건을 볼 때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보면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현상은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업체들은 일본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엔 환율이 적어도 10대 1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도 이를 염두에 두고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등을 통해 엔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원·엔 환율이 언제까지나 10대1이상으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후 국내 외환시장으로는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을 통해 외화가 대거 유입됐으며, 지금도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외화 유입규모는 유출규모보다 커 국내외환시장은 외화 초과공급 상태이며, 이 때문에 원화가 지속적인 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원화절상 압력 완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은 국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원·엔 환율은 앞으로 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일본경제 향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팽배있는 반면,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 원화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정부가 지속적인 물가하락(디플레이션) 현상을 시정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엔저유도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엔저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국내기업들이 냉정하게 반성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환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체질을 견지해 왔다는 점이다.

과거 원·엔 환율과 비교해 보면 현재는 국내기업에 매우 양호한 상태다. 원·100엔 환율을 보면 80년대 후반 470원 안팎에서 93, 94년 600~700원대, 97년 793원, 외환위기 후 1000원 이상으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80년대말에 비하면 현재 원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에 대한 환율상의 불리함을 호소하며 원화의 추가적 절하를 요구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환율 이외의 중요한 경쟁력 원천인 품질향상에 매진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은 이제 엔화환율의 조그마한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취약한 체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품의 품질향상이 중요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사후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정상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류제품을 가지고 물량과 저가격으로 승부하려는 것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이상 될 수 없다.

외환위기 후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환율상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측면이 있다. 또 이 때문에 무역흑자가 지속돼 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반사이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이 환율에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엔저국면을 기업들이 품질경쟁력 강화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